

보도시점 2024. 10. 31.(목) 08:00 배포 2024. 10. 31.(목) 08:00

모두가 다양한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2025년도 열린관광지 20개소 선정

- 35개 지방자치단체 86개 관광지점 신청으로 역대 최고 신청률 기록
- 재활승마, 역사, 안보관광, 자연 등 지역의 핵심 콘텐츠 중심의 관광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와 함께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20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35개 지방자치단체의 86개 관광지점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열린관광지 162개소가 조성되었는데, 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2,752개)의 5.9% 수준이다.

2025년 열린관광지는 핵심 관광콘텐츠를 관광취약계층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현장 평가에서는 심사위원 절반을 휠체어 이용자로 구성해 관광취약계층의 눈높이에서 관광매력도와 개선가능성을 평가했다. 이번 열린관광지가 조성되면 등산이 어려운 고령자도 산 정상에 올라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활승마를 체험하고,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놀이기구를 타는 등 특별한 관광체험을 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이후에는 배리어프리* 전문가, 관광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

으로 시설 개·보수와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관광콘텐츠의 경우 기존 지체장애인 중심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아울러 문체부는 조성이 완료된 열린관광지를 공사 무장애 관광정보 누리집 ‘모두의 여행’(www.access.visitkorea.or.kr)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성된 열린관광지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인구 고령화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누구에게나 평등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도 열린관광지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미경 (044-203-2811)
		담당자	사무관	정은송 (044-203-2816)



□ **2025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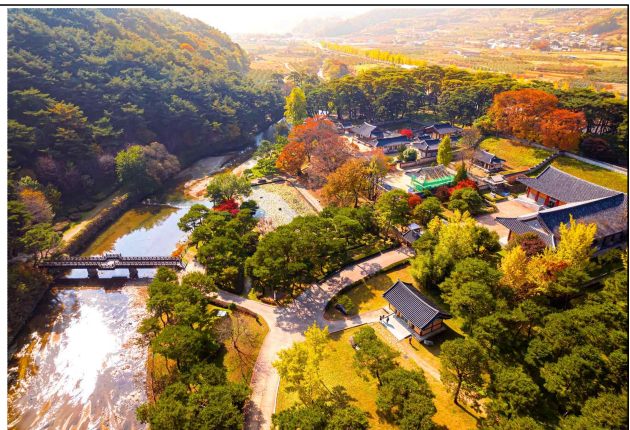
연번	지자체	관광지점(20)	선정 수
1	춘천시	레고랜드, 김유정문학촌	2
2	파주시	제3땅굴, 도라전망대	2
3	거제시	거제식물원	1
4	진주시	진주성, 월아산 숲속의 진주	2
5	합천군	황매산군립공원, 합천영상테마파크	2
6	김천시	직지사 사명대사공원, 산내들오토캠핑장	2
7	상주시	상주국제승마장, 경천섬	2
8	안동시	이육사박물관, 예움터마을	2
9	영주시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3
10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내장산지구),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2

□ **2025년도 열린관광지 주요 사례**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이범수

(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양지뉴 필름

(영주시) 소수서원